



NEWS LETTER

2020년 10월 19일 Vol. 386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의 연구개발 과제가 ‘2020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연구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범부처(과기, 산업, 복지, 식약) 차원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선도, 의료공공복지 구현 등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정우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다인기술 주식회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배뇨장애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4년간 23억 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비대증 및 과민성 방광 등의 배뇨장애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배뇨장애 환자와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의료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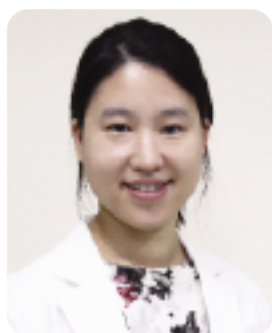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우수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당뇨병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승은 교수는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저혈당으로 인한 입원 경향 분석 및 위험인자 규명’의 논문을 구연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가 겪는 주요 급성 합병증 중 하나인 저혈당 발생의 경향과 위험인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승은 교수는 “국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은 국민건강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당뇨병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저혈당은 위험성이 작은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일정 부분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저혈당의 고위험군인 다수 동반질환을 가진 고령 여성 환자에서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병원1층 로비에서 ‘한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방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한 의사협회에서 지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내원객 및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우리가족 건강을 지키는 한약재 및 보양제를 전시하고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각종 한약재가 담긴 향낭주머니를 무료로 제공한다. 임성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은 “한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방진료의 정보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응원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 전달

경기도 양주시 남면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인 한국마스크는 지난 10월 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마스크 54,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마스크를 전달한 한국마스크 대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 뜻을 전했다.

기증된 마스크는 격리외래 및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